

참 아름다웠던 샘물가족축제



샘물가족축제

지난 9월 23일, 샘물가족축제가 개최되었다. 샘물가족축제(이하 샘가축)는 ‘참 아름다워라’라는 말씀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샘가축은 샘사랑 학부모님들의 주최로 진행되는 샘물의 축제이다. 전체 일정은 학부모님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학년 또는 반으로 준비한 학생들의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개회식 이후 학년별로 진행된 공동체 활동을 비롯하여 게임 프로그램, In쌈네컷, 먹거리 등의 즐길 수 있는 여러 부스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수고로 진행되었던 여러 부스 중 포토존은 가족 사진을 통해 가족과의 추억을 남길 수 있었고, In쌈네컷은 같은 반 혹은 가깝던 친구들끼리 더욱 돈독해질 기회가 되었다.

박소현 기자



▲ 단체사진

무대로 하나 되는 퍼레이드

샘가축의 꽃 퍼레이드! 7학년부터 12학년이 각 학년, 또는 반끼리 모여 준비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자리이다. 각 학년과 반별로 개성 있는 무대들을 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우수한 무대를 보여준 학급에는 상이 수여되었다. 특별히 올해는 고영민 총괄이사님과 더불어 샘사랑 9대, 10대 회장님이셨던 정재석 전 회장님의 심사,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심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투표 결과, 11학년 2반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고등 최우수상은 10학년 1반이, 중등 최우수상은 9학년 진리반이 수상하였다. 또한 특별 심사위원의 투표로 9학년 사랑반과 10학년 3반도 수상하였으며, 7학년과 12학년이 학교장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퍼레이드 후에는 특별 무대 ‘히든 싱어’도 만날 수 있었다. 공연은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수학과 하루쌈, 예원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무대를 빛내주셨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열렬히 호응했다. 폰 라이트를 흔들고 크게 함성을 지르며 다 함께 축제를 즐겼다.

이처럼 샘가축은 샘물배움공동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한 축제였다.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후기와 섬김, 노력의 과정들을 들어보자.

반해빈 기자



▲ 11학년

샘물인들의 샘가축 이야기

7학년 장재하

Q1. 샘가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부모님들의 찬양과 체험 부스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학급마다 다양한 놀거리와 게임 부스를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맛있고 재미있는 간식들과, 선배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의 퍼레이드까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열 손가락도 넘을 만큼 모든 장면과 시간이 너무 소중한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Q2. 학생으로서 샘가축에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한가요?

너무나 큰 행복과 감사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준비해 주신 샘물의 학부모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7학년 공동체에게 감사하고 또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Q3. 샘가축 준비 과정은 어떠하셨나요?

퍼레이드 준비 과정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7학년 모두가 다 같이 퍼레이드를 준비하다 보니 연습도 잘 되지 않고 학생들 개개인의 의견이 전부 반영되지 못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 같이 협력함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4. 샘가축을 준비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학년 때 이런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덕분에 친구들과도 선배들과도 선생님들과도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7학년

김종필 샘사랑 회장님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샘물중고등학교 12기 김주아 아빠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현재 샘물중고등학교 학부모회인 샘사랑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Q2. 샘가축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다 함께 모여 샘가축의 의미부터 생각해 봤었고, 그 결과 샘물배움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무대에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무대를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축제를 기획했고, 학부모님들 또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로 다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았어요. 회의만 2달 동안 약 20회 이상 진행했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서 만나서 회의하기도 쉽지 않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준비 과정이 즐겁고 보람찼던 것 같아요.

Q3. 준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샘사랑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회사와 가정을 병행하며 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 해 섬기는 것이 어려워 1년씩 임원을 맡아주시는데, 그래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경험을 쌓아도 그다음 해에는 백지상태와 같아지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이 부분이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메꿔주셨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Q4. 샘가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모든 과정을 준비하였기에 사실 전부 기억에 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족사진관이 기억에 남아요. 사실 본래 기획했던 의도는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찍는 사진을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하게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다 같이 찍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Q5. 학부모로서 샘가축에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샘가축 이후 여러 피드백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숨 쉬고 생활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장소에서 오랜 시간 함께 같이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또한 체험 부스에서 다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과도 준비하면서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많은 인원이 함께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조금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10학년 구주영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0학년 3반 청지기로 섬기고 있는 구주영이라고 합니다.

Q2. 샘가축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이미지 관리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잘 따라주는 반응은 아니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한다니가 열심히 해줘서 결과물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Q3. 샘가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퍼레이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11학년 2반 선배님들의 태극기 퍼포먼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4. 학생으로서 샘가축에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한가요?

제가 주도하며 준비한 샘가축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샘가축을 마치고 났을 때 뿌듯한 감정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Q5.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샘가축이 생각보다 매우 즐거워서 좋았습니다.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즐거운 자리 만들어 주신 저희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음 해에도 더 재미있는 추억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0학년

Q6. 샘물중고등학교 또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정말 많은데요, 먼저 아이들이 정말 복 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샘물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여러 아쉬움, 은혜, 감사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샘물 안에서 소중한 선생님을 통해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온전히 누리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의 아버지가 선생님이셔서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 ‘학생이 선생에게 불평불만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학생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모두 완벽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시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찾기보다 감사한 점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고 혹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먼저 손들고 일어나서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샘물배움공동체 전체가 성장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아름답지만,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챙겨주고 도와주며 더욱 성장하는 샘물배움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신 샘사랑 부회장님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학부모회 부회장이자 고등(학부모)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영신입니다.

Q2. 샘가축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작년에는 첫 회로서 부원으로 맡은 일만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부회장으로서 다른 부서들과 회장님의 노력을 보고 돕는 입장에서 준비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멋모르고 했었다면, 올해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했어요.

Q3.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사실 부회장으로서의 어려움은 없었지만, 고등 대표로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각 학년과 반의 대표를 맡아 섬겨주신 분들과 촉박한 기간 안에 소통하고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헌신적인 사랑과 힘을 발휘하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Q4. 샘가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가 그날 비가 와서 아침에 준비했어요. 처음 천막을 치는데 휘고 넘어져서 망가지더라고요. 다행히 비가 덜 와서 천막을 쳤는데, 그때가 학부모님들이 오시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어요. 천막 지붕에 물이 고여 쓰러질 지경이어서 저희가 막대기로 물을 쏟아붓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중에 저한테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날씨도 추웠고, 전날 머리도 자르고 나름 열심히 꾸몄는데 오자마자 아이스 버킷 하는 것 같이 쫄딱 젖은 거예요. 다행히도 몸살이나 감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시작하기 전엔 걱정되지만, 또 시작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잘 끝나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다들 저를 보고 즐겁게 하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저도 즐거웠어요. 또 준비하면서 샘사랑 임원분들이 직장도 있으신데도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런 학부모님들의 열심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능력자들이 정말 많으신 거예요. 각 분야에서 박사이신 분들이 만나 서로 맞아 돌아가는 모습이 멋있었고, 그런 멋진 모습들이 합해져서 멋진 그림이 완성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Q5. 학부모로서 샘가축에 참여한 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샘가축이 끝난 지 한 1년 된 것처럼 아주 옛날 같아요. 너무 바쁘게 준비를 몰아서 하다가 결국 그날 비가 왔잖아요? ‘비만 안 오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아침에 비가 갑자기 와버려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니까, 준비하긴 했지만 잘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과연 비가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까?’ 했지만, 비가 와서 더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학생들이 학부모들을 위해서 놀아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웃음) 또 혹시 학부모회 임원들만 신이 났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는 자리여서,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을 건 알았지만, 비가 와서 참여한 분 중에는 오히려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같이 지낼 수 있어 좋았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험이 있으니까 더 도와주면서 학생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변수도 많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다 감사할 뿐입니다.

Q6. 샘물중고등학교 또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우선 학생들 정말 예쁘고, 엄마 아빠들이 펼쳐준 자리에서 잘 놀아주고 열심히 임해줘서 고마워요. 학생들이 정말 잘 놀 줄 알고,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대로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냥 일단 학교와 펼쳐주신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학부모회를 맡아주실 훌륭한 분들이 세워지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부모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학부모회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요.



▲ 축제를 즐기는 샘물인들



▲ 선생님들의 빼끼빼끼

▼ 샘사랑



샘가축은 시상식과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시상식에서는 퍼레이드 부문을 비롯하여 부스에 참여하는 동안 진행되었던 학급별 스탬프 부문이 시상되었다. 스탬프 상은 8복음과 11-1반이 수상하였다.

샘가축은 모든 학생을 비롯하여 샘물의 가족들까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되었다. 샘가축은 학생들끼리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다. 다 함께 즐기며 참여한 퍼레이드와 맛있는 간식, 재미난 부스들 뒤에는 학부모의 노력의 손길과 기도가 담겨 있다. 바쁜 일정 속에 모두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기획해 주신 샘사랑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샘물배움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박소현 기자 반해빈 기자 전예빛 기자

급식으로 전하는 사랑과 정성, 김동규 셰프님의 이야기

“저는 아파서 조퇴를 할 때에도 점심이나 석식은 꼭 먹고 가요” -이길 학생



샘물인들에게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물어보면 대부분 점심 시간을 꼽을 것이다. 항상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힘써주시는 분들의 수고 덕분이다. 그 중에서도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계신 샘물의 급식 대가 밥쌤(김동규 셰프님)을 샘보가 직접 취재해 보았다.

Q1. 샘물에서 셰프님으로 일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했던 일이 여러 가지 있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 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거든. 대학원에서는 PR 광고를 전공했고, 이랜드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의류 사업부에서 일을 했어. 그러다가 회사에 외식사업부가 생겼고, 나는 그곳으로 이동을 했지. 그러면서 외식계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거야.

Q2. 요리를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인가요?

내가 처음에 했던 일은 매장 관리를 하는 거였어. 명동에 있는 피자 매장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가 피자 매장을 관리하면서 느꼈던 것이 음식을 판매하려면 그 음식의 본질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요리 쪽으로 점점 관련을 갖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시작을 했지.

Q3. 어떤 계기로 샘물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그렇게 10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피자 가게, 햄버거 가게를 운영을 했었어. 다음에 스파게티 가게,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렇게 네 번의 점포를 운영을 하게 됐지. 그게 또 한 10년 이상 됐어. 나는 자녀가 5명이야. 셋째, 넷째, 다섯째가 이 학교를 다녔어. (1기, 3기, 6기) 그러니까 내가 여기 급식한 지가 15년 차야. 내가 학부모잖아. 학부모였으니까 학교하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이쪽에서 급식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인생이 바빠. 나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잖아. 그리고 광고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대학원도 PR 광고 전공을 했어. 물론 처음에는 관리 업무를 하다가, 외식 사업부로도 갔다가, 거기서 핵심은 요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자영업을 했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왔어. 결국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나는 먹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배우는게 너무 재미있어. 학생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으니까. 대학교서부터 조리를 했었다면 더 많은 걸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 바닥이 보이면,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Q4. 셰프님이 가장 자신 있어하시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일 잘하고 싶어. 대답이 좀 이상한가? (웃음) 내가 이탈리아 요리를 공부하고, 이탈리아 요리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었던 해도 결국 난 한국 사람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적이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일 잘하고 싶어. 딱히 잘하는 음식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Q5. 개인적으로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식성이 너무 좋은 편이라 모든 나라의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 현지 음식들을 실제로 먹어봐야 학생들한테 잘해줄 수 있기에 최근에 말레이시아에 갔었어. 외국에 가면 현지 음식만 먹는데 일본에 가면 일본 음식이 맛있고, 베트남에 갔을 때는 또 베트남 음식이 맛있더라고.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식재료를 현지 방식으로 조리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내 사명이라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다 맛있어.

Q6. 일하면서 가장 뿌듯하실 때가 언제인가요?

두말할 것 없이 학생들이 잘 먹어주는 게 고맙지. 그래도 나 자신이 부족한 게 많다고 느낄 때는 학생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날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학생들에게 보답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 그런 생각이 매일 반복이야. 자신있게 한 음식도 돌아보면 학생들한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내가 또 교만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처음 하는 음식은 실습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어. 음식하고 맞짱 뜨는 거야. 변수가 너무 많으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음식이 딱 만들어졌는데 학생들이 좋아해 주고, 잘 먹어주면 항상 학생들한테 고마워.



▲ 밥쌤의 모습

Q7. 일하시면서 힘들실 때는 언제이신가요?

주방 안이 더운 것도 있지만, 사실 제일 힘든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식, 재미난 음식, 맛있는 음식 이런 걸 해주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고갈된다거나 맨날 같은 음식만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책을 보는데 책에서도 답이 안 나올 때, 그럴 때가 힘들지. 그럴 때마다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백지를 꺼내놓고 가을이면 가을, 이렇게 써놓고, 아이디어를 적으며 급식 메뉴를 떠올리곤해. 중식은 우리 권사님이 짜고, 석식은 내가 짜는데, 어떤 메뉴를 짜야 학생들이 좋아할지, 또 제철 식재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밌으면서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고 건강한 음식을 해줄 수 있을까 말이야. 생각이 잘 될 때는 너무 행복하고 진도가 술술 나가는데 생각이 잘 안 들 때는 머리랑 마음도 힘든 것 같아.

Q8.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급식을 잘 먹어줘서 고맙고, 자랑스러운 샘물 학생들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 그리고 급식은 셰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아내 부속진 권사님과 여사님들이 팀워크를 맞춰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께도 늘 고마운 마음이야. 지원팀 선생님, 배식 봉사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또 급식 관련해서 도와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학교를 믿고 맡겨 주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에 사명을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해.(웃음) 내가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이 사명을 일찍 깨달았으면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더 많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어.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혜의 양식을 얻고, 육신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밥을 잘 챙겨 먹고 편식하지 않길!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을 향한 셰프님의 진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5년간 변함없이 맛있는 급식으로 샘물을 섬겨주신 셰프님께 샘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은빈 기자 배영현 기자 정다혜 기자

빅쌤 인터뷰

Q1. 급식 메뉴 중 빅쌤의 최애 메뉴는 무엇인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먹은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사실 소고기 미역국 말고 조개나 다른 걸 넣고 끓인 미역국도 좋지만 미역국의 풍미를 굉장히 배가시켜 주는 게 소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고기 미역국에 밥이랑 김치랑 먹는 건 정말 정말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웃음)

Q2. 급식에 대해 하고 싶은 말

김동규 장로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 이 음식 저 음식 따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음식과 음식 간의 어떤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일종의 페어링이라고 하죠. 일례로 오늘 먹은 음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떡갈비도 나오고 샐러드도 나왔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빵을 반으로 쪼개서 거기에 샐러드 넣고, 떡갈비 넣어서 햄버거처럼 만들어서 먹어봤나요? 다른 세상입니다. (웃음) 이렇게 먹어보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아직 김동규 장로님의 ‘의도’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Q3.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급식을 드셨을 텐데 몇 년간 드셨죠?

그러게요. 7학년 8학년쯤부터 먹었으니깐요, 2011년부터 13년동안 계속 먹었다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여기로 나오기 때문에 셰프님의 음식을 주일에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Q4.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급식을 드시면서 바뀐 점이 있었나요?

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다양성에 대한 시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들은 걸로는 셰프님께서 방학이나 이럴 때 일부러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해요. 연구차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동남아를 다녀오시고 나서 학교 석식에 그런 음식들을 실제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향이 나는 코코넛 밥, 이런 시도들을 보며 저는 “아니 어떻게 학교 교실에서 이런 걸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석식 인원이 적으니까 밥샘 입장에서는 더 퀄리티가 높은 음식을 준비할 수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번은 앉아서 큰 닭 한 마리를 4명씩 먹으라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뀐 점이라고 하는 게, 음식 연구나 개발을 더욱 많이 하셔서 학생들이 좀 새로운 음식들을 실제로 접해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Q5. 셰프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셰프님, 저 현욱입니다. 전 지금 자취해서 혼자 사는데 엄마 밥이 그리워요. 않은건 모두 장로님 덕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태 장로님 밥을 엄마 밥보다 많이 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학창 시절에 대부분의 식사를 학교에서만 했었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저의 엄마이십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마 사랑해.) 더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배영현 기자



▲ 셰프님의 젊은 시절

체험학습에서 맺은 우리들의 열매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고 잎이 떨어질 것을 준비하는 시기, 10월 샘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가을학기를 마무리하는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샘보는 그 중 첫 체험학습을 다녀온 7학년과 중학교를 마무리하며 졸업여행 떠난 9학년의 졸업여행에 대해 취재해 보았다.

샘물에서의 첫 체험학습

샘물의 막내 16기는 23일 샘물에서의 첫 체험학습을 떠났다. 북촌에 방문했던 이전 체험학습과 달리 올해는 국회의사당에 방문했다. 첫 체험학습의 설렘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7학년 박지은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지은 학생은 국회의사당에 가서 안전을 듣고 투표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전체 체험학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민속촌에 위치한 귀신의 집에 간 것이었다고 한다. 박지은 학생은 귀신이 너무 무서워 친구들과 함께 눈을 질끈 감고 소리를 지르다가 목이 쉬었다는 귀여운 에피소드를 나누어주었다. 16기로 만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첫 체험학습은 몰랐던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16기가 샘물에서의 이번 체험학습처럼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기를 샘보가 기도한다.



▲ 국회의사당 앞 7학년



▲ 9학년 졸업여행

샘물중에서의 마지막 체험학습

졸업을 앞둔 9학년, 23일 통영으로 졸업여행 떠났다. 전통시장, 동피랑 등 통영의 대표 관광지에서 각종 임무를 수행하고 요트와 수상택시 체험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다. 서예은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14기의 3일만에 걸친 졸업여행을 알아보자.

가장 행복한 2박 3일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하고 출발한 졸업여행, 평소 어색했던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행복한 추억들을 쌓고 돌아왔다고 말해준 서예은 학생.

서예은 학생은 졸업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요트를 탈 때는 ‘이게 청춘이다’ 느낄 정도로 즐거웠다고 한다. 요트를 타며 본 빛나는 바다와 요트 위에서 보낸 시간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답해주었다. 졸업여행의 꽃, ‘샘물이 바다 되어’ 장기 자랑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서예은 학생은 특히 반별 무대를 보며, 샘가축때보다 성장한 친구들의 춤 실력에 감동하였다고 말했다. 조용한 친구들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며 뜨겁게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원래는 14기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번 졸업여행을 통해 14기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졸업여행 이후에도 14기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서예은 학생의 말에서 14기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졸업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서예은 학생은 요트를 타고 나오던 중, 한 친구가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았던 게 가장 인상 깊었다며 14기에는 참 다채롭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서예은 학생은 “14기 친구들아! 우리 남은 중학교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 보자! 모델쌤, 여름쌤, 나래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서로 알아가고 성장하고, 많이 울고 웃었던 이번 14기의 졸업여행. 졸업여행을 통해 14기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임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샘물에서의 남은 십 대를 함께 반짝이는 추억들로 채워나가는 14기가 되길 소망한다.

서승주 기자 양혜빈 기자 이서원 기자



▲ 7학년 체험학습



▲ 8학년 체험학습



▲ 9학년 졸업여행



▲ 10학년 갈산교회



▲ 11학년 체험여행

시간과 정성이 담긴 입학 설명회

2024년 9월 7일, 2025년 신입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입학설명회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학교 행사이다. 이번 입학설명회에는 약 160가정이 방문하였다. 샘보는 입학설명회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소감을 물어보았다.

8학년 표가온

Q1. 왜 해당 과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작년 성경과 입학 설명회를 했던 기억이 좋아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성경은 맺음이 있는 다른 과목들과 달리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성경과를 맡으며 배운 것을 돌아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성경과를 선택했습니다.

Q2.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실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더 귀 기울여 들어줬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교가를 부르는 샘물 학생들



9학년 우하음

Q1. 왜 해당 과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다른 분들에게 배운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어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2. 입학설명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점인 것 같아요.

Q3. 중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어떠셨나요?

향기썸이 권유하셨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 정말 떨렸었는데, 향기썸의 격려 덕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11학년 김지수

Q1. 입학설명회에서 왜 음악과를 선택하셨나요?

소리썸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워낙 급하게 준비하느라 많이 떨렸네요.

Q2. 입학설명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음악과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Q3. 혼자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예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 떨려서 말을 계속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하꿈썸

Q1. 입학 설명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샘물 중고등학교가 어떤 교육 목표를 가졌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을 주는지, 그리고 그 배움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어요.

Q2. 설명회를 총괄하며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건 부담감이었어요. ‘학교를 잘 소개하지 못하면 입학 안 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함도 컸어요. 교사들과 학생들이 정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느낀 것 같아요.

Q3. 원래부터 발표를 잘하셨나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청중에게 잘 전달됐을 때 느끼는 뿌듯함과 희열이 있죠. 사실 말로 먹고사는 직업이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전달이 잘 났다는 느낌이 오면 성취감과 희열감이 큼니다.

Q4. 입학 설명회의 자랑할 만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학과 박람회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학생들이 직접 본인의 배움을 예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더 사랑하게 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장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Q5. 학생들에게 많은 준비를 맡기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해요. 학생들이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이 행사까지 준비하는 걸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그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를 소개하는 게 가장 큰 자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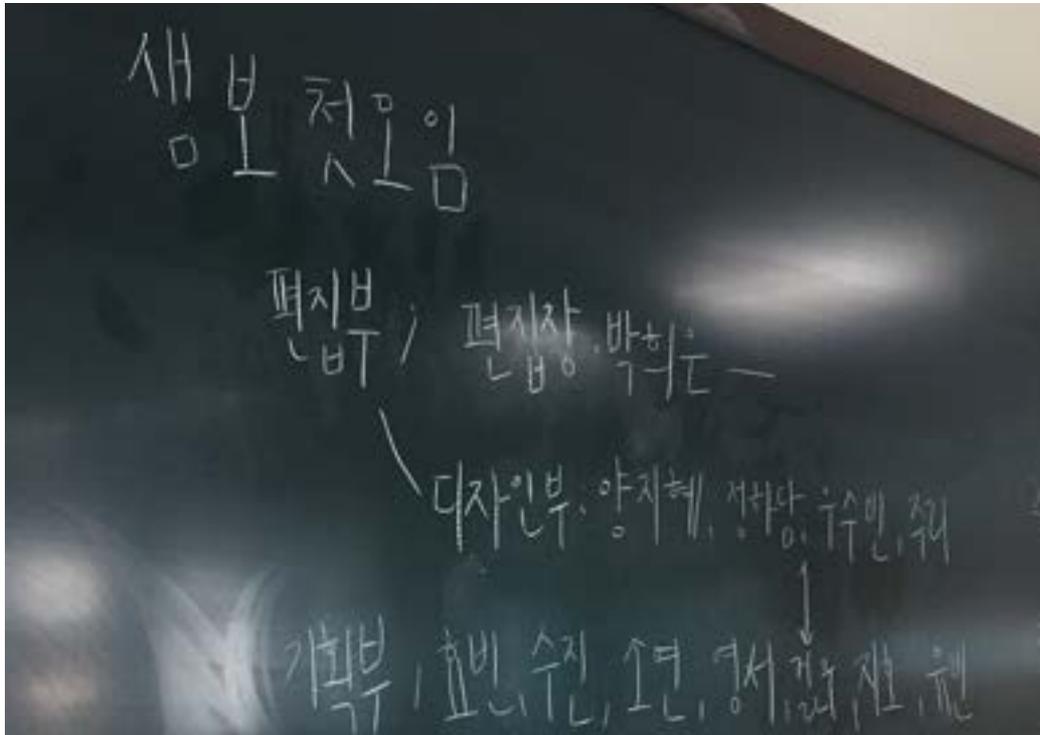
안예나 기자 이루리 기자 이수하 기자

샘보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샘보의 ‘보’ 자는 걸음의 단위를 뜻한다. 샘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담아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샘보는 2017년 첫 발걸음을 떼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따라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취재하고 신문에 담으며 꾸준히 나아간 샘보.

2024년 멈추었던 발걸음을 다시 댄 샘보가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첫 편집장 박희은(6기) 선배님과 그 뒤를 이은 편집장 공유빈(7기) 선배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세월호 추모 기획 생각을 하다가 신문의 목적이 그 아픔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기억하는것에 있다는 확신이 들자 발행할 의지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이 참사에 대한 기억이, 참사를 기억하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저마다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기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픔을 숨기기도는 공유하는 것이 연대에 가깝다는 마음으로 기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과 의견들을 샘보 안에서 공유했던 것이 기억에 깊이 남아서 마음에 남는 기사가 되었어요. 또, 기

Q1. 샘보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박: 샘보를 시작했을 때가 2017년이니까 이제 거의 6~7년 전이죠. 근데도 선명히 생각이 나요. 사회 수업이 끝나고 풍당썰매서 하꿈썰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를 쳤나 보다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찾아왔는데 하꿈썰이 너 동아리 하나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문부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그게 시작점이 됐어요. 그 제안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친구들이 있었고 이후에 친구들을 엄청 설득 하고 부원들이 모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 저는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와서 동아리를 뭐 할까 기대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강당에 다 같이 모여서 동아리 홍보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박희은) 선배님께서 되게 재밌는 홍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영상을 보고 저렇게 유쾌한 분위기의 신문부라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심 있어 보이는 친구 한 명과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Q2. 당시 샘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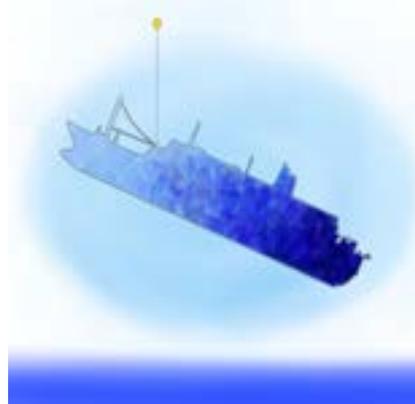
박: 계절에 나오는 계간지를 목표로, 한학기에 4페이지로 된 신문 하나를 만들고자 했어요. 1년에 4개를 내는 거였죠. 근데 마음처럼 잘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목표라고 한다면 샘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는 게 목표였어요. 다양한 구성원이 샘물을 본다고 전제했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샘보가 학생을 위한 신문이지만 선생님이란 학부모님 또한 샘보를 읽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창간호의 축하 말에도 선생님이란 학생 축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축하도 받아서 적으며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어요. 나중에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학교 신문을 읽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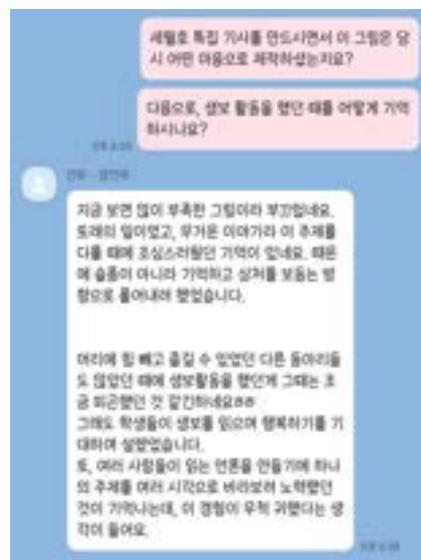
공: 학생들에게 학교 소식을 전달해서 샘물을 하나로 읽는 것이 가장 우선된 목표였어요. 급식 줄을 서면서 아니면 복도를 지나면서 심심할 때 볼 수 있는 샘물만의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있어요. 그래서 “다음 호는 언제 나와” 라거나 “샘보 새로 나왔대” 하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지만 못 들은 것 같아요.

Q3. 기억에 남는 혹은 자랑스러운 기사는?

박: 네, 기억에 남는 기사는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획했던 기사문이에요. 실제 발행한 기사 파일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 샘보 디자인부에서 제작한 추모 일러스트를 표지 전문에 배치를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문을 제작하는 일이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분들의 아픔을 단순히 재현하는 일이 되는것이 아닐지 무척 두려웠거든요.



17-18년도 샘부 부원 양진우 제공 ▲ 18년도 제작했던 세월호 추모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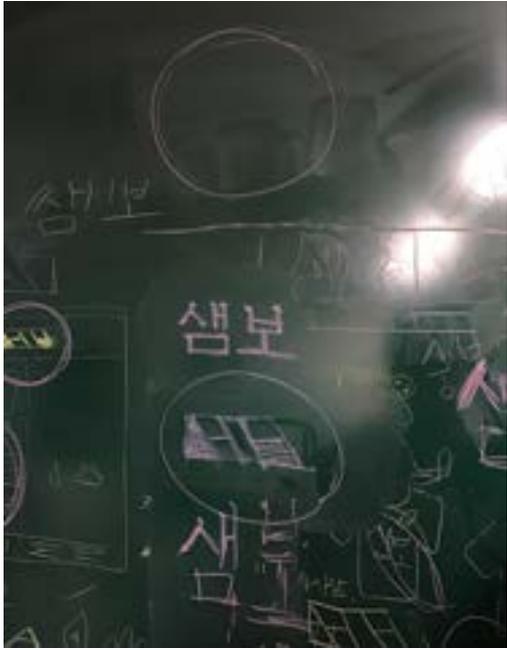


▲ 샘보 부원과의 대화

억에 남는 기사는, 생활부와 관련한 인터뷰 기사로 발행 이후 학생부랑 마찰이 있었던적이 있어요. 신문부 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기사라서 당황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사를 쓴 후배가 많이 놀랐고요. 어느 정도 정리되고 ‘관점’에 대해서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전까지 후배는 관점의 다양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일과 함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여러 관점을 생각하고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샘보 인터뷰 질문지를 받고 오랜 만에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에게는 이 일이 후배를 좀 더 변호해주지 못했던 미안한 일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하며 사과를 했더니 후배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 중 하나로 이 일이 남았다며 사과를 안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척 고맙었어요.

공: 2019년도에 셰프님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주변에 당연하게 계시지만 없으면 안 될 감사한 분들을 인터뷰하자는 취지의 기사였어요. 원래도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대면으로 인터뷰를 해보니 진짜 학생들을 엄청 많이 생각하시며 섬기고 계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유빈이는 어떤 진로에 관심이 있는 거냐고 하시면서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쏟아주시는게 너무 감사했고, 그 뒤로 좀 더 경비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들, 저희 학교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 샘보

Q4. 1년동안 편집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기억나는 사건 있나요?

박: 샘보 이름 지을 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샘보라는 이름은 17년도에 처음 신문부로 모였던 친구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샘물의 신문부라는 정체성을 나타내기에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단어에 담으면 좋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샘보라는 이름을 떠올렸어요. 샘보라는 이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샘물에서 샘을, 그리고 그것을 특징으로 지닌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보'를 합쳐 샘물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샘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다음으로는 샘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담아내겠다는 걸음의 단위인 보를 합쳐서 샘보라는 뜻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대중 전달 매체라는 의미의 '보(報)'를 사용해서 만든 샘보. 정리를 하자면 샘보는 샘물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 샘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담아내겠다는 의지로, 샘물의 새로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만든 매체라는 뜻이에요. 그때 딱 짓고 나서 저희가 아이콘도 디자인도 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 다들 약간 자부심이 약간씩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아도 신문부의 정체성을 잘 담아낸 한 단어로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부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샘보가, 계속해서 많은 샘물인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공: 샘보에서 후배로 있을 때는 되게 우주쭈를 많이 받았거든요. 유빈이는 이것만 해와~ 하고 그것만 해오면 멋있는 신문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편집장이 되어 보니까 기사 기획부터 시작해서 부원들과 역할을 나누고, 기한 안에 결과물을 수렴해서 또 검토하고 보완하고 하는 일일생각보다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편집장 자리가 자신이 없었는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시간이 시작되면 저를 편집장님이라고 불러주고 잘 따라준 친구들 덕에 지금까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은 사건은 학생들 사진을 사용한 적 있었어요. 근데 사진에 얼굴이 나온 선배님께서 기사를 쓴 친구를 찾아가서 기분이 나쁘다 얘기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야 누군가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사용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걸 생각 못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했던 기억이 나요.

Q5. 편집장을 하셨을 때와 지금의 샘보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박: 제가 지금의 샘보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편집장으로 있었을 때 파일을 어디서 구하셔서 깨지는 한글 파일을 게시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샘보 기사랑 지금의 기사를 쪽 읽어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신문 발행을 준비할 때 하늘쌤(고운쌤)이 야근까지 하시면서 도와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서 글을 편집할 때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글 프로그램을 갈아서 썼어요. 나중에는 샘보 디자인부 친구들이 인디자인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풀쌤 따님이 6기 양지혜인데 제 친구예요.- 지혜한테 “그때를 다시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생고생이고 너무 귀한 일이었고, 미안하다.” 이렇게 연락했더니 지혜가 “희연아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때 너의 리더십을 봤다.” 이렇게 얘기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 후배님들께서 쓰시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이제 신문부는 따로 있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기사가 하나씩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생 인터뷰한 거를 봤어요.)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문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샘보를 읽게 유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후배님들도 너무 잘해나가고 계신거 같습니다!



▲ 박희은(좌), 공유빈(우) 선배님



▲ 샘보 1호

공: 라크쌤이 선물해주신 1호를 받고 마지막 장을 봤는데 샘보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완성된 형태의 신문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큰 종이에 하나만 인쇄해서 벽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신문 게재 기간이 끝나서 해야 될 때 조심조심 떼어서 집에 가져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간직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문부라는 명색이 걸맞은 예쁜 작품들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Q6. 샘물과 샘보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박: 저는 종결된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 같은 마음이에요. 제 진로나 관심사가 다 샘물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든 샘물에서 가져온 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샘보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지금까지도 떠올리면 너무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벽면에 붙은 후원지를 보고 그때 가진 유일한 현금인 만원을 후원할 정도로요. 5만 원이 있었더라면 5만 원을 하지 않았을까요. (웃음)

공: 샘물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일이 지금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거의 절반 이상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교육 방침도 그렇고 저한테는 샘물이 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쓴 글을 용기가 없어서 누구한테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샘보가 처음으로 제가 쓴 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됐어요. 서로의 글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가르쳐준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Q7. 샘보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저는 무엇보다 스스로 즐겁게, 신문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하는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공: 저희 때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냥 제가 너무 부럽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많은 작품을 남기시고 많은 질문을 남기시고 주변에도 많이 자랑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멋진 발걸음을 남겨주신 선배님들. 샘보는 지금도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내딛을 선배님들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기유진 기자 이주원 기자 홍아진 기자

빠짐없이 골고루: 두루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등에 번쩍, 서에 번쩍. 급식실에서, 오후 카페에서도, 심지어 미국에서도 샘물 학생과 함께하는 두루샘을 만날 수 있다. 학교 곳곳을 두루 섬기고 싶어 두루라는 별칭을 지으셨다는 두루샘. 두루샘은 현재 샘물의 총괄이사로서 국제 교류, 지원업무, 급식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학교의 중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다. 샘보는 지난 10월, 두루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1. 학교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출근해서 학교순찰, 등교지도, 시설관리, 청소와 정리 등을 하고 학생들과 같은 시간에 복상하고 이후는 총괄이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다시 시설관리, 청소와 정리를 하고 퇴근하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샘물배움공동체는 총괄이사라는 특별한 직책을 두고 있는데 총괄이사는 학교의 행정을 총괄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연구소 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학교의 규정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와 함께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운영은 각 학교장들이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고 행정업무는 지원실 담당 선생님들이 잘 해주고 계셔서 저는 특별히 힘든 일 없이 학교 전체를 지켜보고 빈틈을 매우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Q2. 왜 두루로 별칭을 짓게 되셨나요?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두루'의 한글 뜻처럼 학교의 다양한 일을 빠짐없이 골고루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고, 'through'라는 영어단어처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through'는 전치사잖아요, 있으면 풍성해지지만 없어도 공동체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직책으로 만드는 것이 임기 중의 작은 목표입니다.

Q3. 샘물에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두 아들(4기/7기(중등졸업))이 여기에 학생으로 있었어요. 2012년 고등학교를 설립하며 당시 총괄 이사님께서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학부모였던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학교에

오기 전 15년 정도 해외에서 교육 분야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런 경력이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이전 리더십이 하셔서 학교의 운영상황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미 콜롬비아에서 장기간 컨설팅을 하던 중 다시 학교의 부름을 받아 2015년 4월부터 지원본부 기획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2017년 11월부터 2년 간 학교를 떠나 다른 사업을 잠시 운영하다가 2019년 총괄이사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Q4. 이사님의 인생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순종, 불순종의 삶을 살았죠.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제 의지로 살았는데,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순종의 삶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 오기 전에 한 47개국 정도에서 교육 컨설팅을 했어요.

주로 이제 ODA 사업(해외 개발 원조 사업)이라고 각 나라에 있는 돈을 저개발 국가들과 매칭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 단위의 교육부, 지방자치 단위, 학교의 교육적인 비전을 세우는 일을 지원을 했어요.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연결해 주고, 그걸 수행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잠깐 학교를 그만두고 2년 정도 카페와 식당을 같이 차려서 운영을 했어요.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됐거든요. 거기서 셰프도 하고 고기도 굽고 바리스타도 했어요.

Q5. 이사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평생 꿈이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뭐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더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꿈도 없고, ADHD가 있어서 집중도 잘 못하고,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삶이었지만 하루씩 버티며 견뎌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덕분에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함께 하며 그 길을 걷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세울 꿈도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샘물의 학생들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의 불안과 실망은 나의 의지와 힘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의 이야기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올라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나빠도 포기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셨듯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꿈은 지금도 없어요. 뭐가 되고 싶고 이 학교를 어떻게 만들고 싶고 이런 비전은 전혀 없고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 국토순례 이사님의 모습

Q6. 이사님이 바라보시는 샘물의 모습은 어떤가요?

샘물은 되게 귀한 곳이지요. 15년밖에 안 됐음에도 규모를 보면 굉장히 잘 이루어낸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해요. 우리 어른들이 갖춰야 할 것들을 지난 15년간 잘 갖춰 냈나 봤을 때 너무 안일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학부모 그리고 행정실 직원으로 경험했던 10년 간의 샘물과 총괄이사로 부임한 후 5년의 샘물에는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졸업생과 그 학부모들의 헌신 위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의 재학생들은 훨씬 자유롭고 자기주도적이고 공동체성이 확립되었다고 느껴져요. 이전에는 마지못해 했던 일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실천하면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들을 볼 때 정말 좋아요. 11기부터 16기까지 있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은혜샘물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다 너무 예쁘고 이런 아이들이랑 한 공간에서 내가 있을 자격이 있는가를 늘 묻곤 해요.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 효민이와 이사님



▲ 12기와 찍은 인생네컷

Q9. 샘물인들에게 한마디

샘물배움공동체와 함께 해주시며 늘 헌신적으로 동역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가 아직 한없이 부족하지만 자녀의 부족함을 학교가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과 동일하게 학교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샘물의 자랑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샘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이고 행복입니다. 잘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멈추지 않기를 응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저보다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샘물에 오게 되었고 샘물을 통해 성장할 것이고 각자의 은사대로 여기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우리 각자가 가진 꿈과 계획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니 자기 자신과 친구를 낮춰보지 말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 절망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언제든지 학교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잘못을 했더라도 샘물에서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니 편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과 커피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기유진 기자

Q7. 이사님이 꿈꾸는 샘물의 모습은?

제가 꿈꾸는 샘물의 모습은 없어요. 샘물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생각이 앞서면 샘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학교의 설립정신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립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믿고 그 설립정신이 오염되지 않게 유지하는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샘물은 '섬기는 예수제자'를 양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니 저부터 섬김을 실천하는 길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세계에서 가장 좋으신 샘물의 선생님들이 섬김의 본을 잘 보여주시고 늘 존경하는 학부모님들이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학생들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기에 부족하고 속도로 느리지만 샘물이 가야할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8. 샘보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샘보는 언론이잖아요. 언론의 건전성이 공동체의 건강을 나타낸다 생각해요. 샘보가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학교의 언론으로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학교부설 언론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샘물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단계인데 이 언론사는 학생 중심으로 운영해보려고 하고 당연히 샘보가 중심이 될거예요. 평생교육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교사교육, 학부모교육 뿐 아니라 학부모동아리 등을 전문화하고 학부모 전문가를 발굴하고 특별히 경력단절 중인 학부모들과 졸업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기독교학교와 지역사회를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교육원은 그 명칭처럼 사람의 인생 전연령기를 함께 하는 곳이기에 샘물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강사로 그리고 다시 학생으로 함께 하며 평생의 교육공동체가 되는 것이 작은 목표입니다. 이제 첫 걸음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샘보를 중심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샘축에서 두루샘

하나님을 만나 기쁜 새날, 11기를 만나 감사한 샘물인들



샘물중고등학교 샘물관 2층은 밤이 되어도 유독 밝다. 자신의 자리를 곳곳이 지키며 공부하는 이들은 샘물의 꽃, 12학년 (11기)이다. 11기는 2019년 샘물중학교의 7학년으로 입학해 코로나 시기를 보낸 후 2022년 샘물고등학교 입학 을 거쳐 2024년, 12학년이 되었다. 7학년 때 마음밭을 가꾸고, 씨를 뿌려 하나님 안에서 점점 성장하며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샘보는 수능을 앞두고 있던 12학년을 곁에서 언제나 응원으로 함께하는 11기의 페이스메이커들을 취재해 보았다. 11기의 곁에 항상 함께 있어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11기 형제자매의 응원

11기 김선현 동생, 13기 김선진

언니의 동생이 된 지 17년 차, 12학년의 동생이 된 지 11개월 차. 샘보는 12학년 김선현 학생과 한 지붕 아래 사는 수험생의 동생 13기 김선진에게 질문했다.

Q1. 12학년을 자매로 둔 심정은 어떠신가요?

너무 힘듭니다. 확실히 다른 학년일 때보다는 좀 더 예민한 것 같고 뭔가 제가 알아서 꼬리를 내려야 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최대한 조용히 살아서 언니의 스트레스를 덜어줘야 하는 시기라서 어렵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지만 언니도 그만큼 많이 힘든 때니까 이해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Q2. 언니 자랑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언니는요, 어느 장소나 어느 환경에서든 집중하고 공부를 잘해요. 제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저희 언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되게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언니는 약간 모범생 기질이 있어요. 자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처럼 지각도 안 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자매 사이가 좋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만큼 저에게 잘 맞춰주는 순하고 착한 언니를 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Q3. D-50 영상에 못 담은 언니에게 전하는 진심은?

언니, 우리 친구 같은 사이잖아. 그만큼 이런 못난 동생이라도 참고 같이 살아줘서 아주 고맙고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워. 언니의 부족한 모습까지 내가 뒤에서 뒷바라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얼마 안 남은 수능 최선을 다하고. 언니 침대에 그만 누워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언니의 모습을 기대할게. 내가 언니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안녕~

12-1 담임, 새날샘

다음은 새날샘, 11기와 새날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11기의 9학년(반년), 11학년에 이어 12학년 담임을 담당한 새날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1. 11기의 특징(장점 & 자랑)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걸바속축!

걸은 선생님들 없이도 혼자서도 뭐든 척척 하는 아이들이지만 속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살아가는 말랑말랑한 11기예요. 11학년을 담임할 때는 아이들이 각자 할 일들을 잘하고,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을 정도라 친해지지 못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2학년을 담임해보니 아이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작은 말 한 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두번째, 사랑스러움!

아이들이 미친 듯이 사랑스러워요. 밖에 나가면 누가 봐도 이제 다 큰 아이들이지만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모두 엄청난 사랑스러움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놀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성실함!

말할 필요도 없이 11기는 성실함이 큰 장점인 기수예요. 그 어떤 기수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니다. 공부면 공부, 노는 것이면 노는 것,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열심히 해요.

보너스, 끼와 재능!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더이상 말하면 너무 11기 팔불출일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Q2. 11기의 입시를 함께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 소개해 주세요.

5월 어느 날.. 학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던 중 자주를 빼고 집에 갔다는 한 학생의 문자를 받았어요. 12학년이 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회가 마무리되자마자 그 학생의 집으로 따릉이를 타고 학생을 찾으러 달려갔어요. 학생 집의 초인종을 누르니 문 앞에는 이미 가방을 메고 학교로 나갈 준비를 하는 학생이 보였어요. 학생의 뒤에 계셨던 아버님과 서로 죄송하다는 말로 첫 만남을 하고 학생을 데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Q3. 11기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11기,

너무너무 사랑하는 11기지만 왜 너희 앞에만 서면 장난치고 싶고, 놀리고 싶을까. 사실은 응원하는 마음이 한가득인데 놀리고 장난치느라 여태 제대로 응원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지금까지 12학년의 시간을 보내며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 진로 진학을 결정하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설 때도 정말 많았을 것이고..

매일 자리에 앉아 책을 붙들고는 있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마주했을 때의 실망감.. 그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며 도와줄 수 있는 것 하나 없을 때 선생님은 아침마다 예배당에 올라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

선생님도 너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열매를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기도하기도 했어...

참 믿음이 없는 선생님이지?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선생님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모습으로 너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더라. 마주하는 두려운 상황들 속에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선생님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으며 여기까지 오니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더라! 수능이 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지? 수능 이후 믿음으로 더 굳게 서서 승리하는 12학년이 되자!

앞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더 치열하게 울고 웃으며 걸어갈 때 그 끝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에 선생님은 그저 기도로 너희를 응원할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너희를 만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야~ 11기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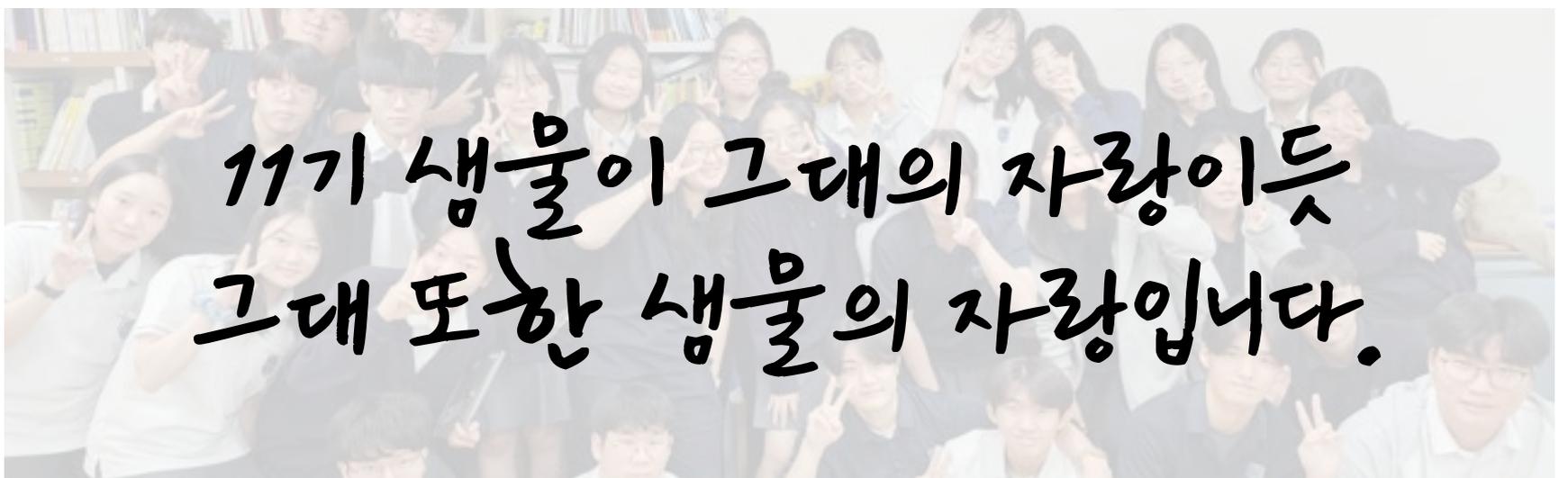
11기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이들 외에도, 수많은 샘물인들은 매일 치열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12학년을 응원했다. 응원이 절실한 12학년을 위해 후배들은 수능 D-100, D-50 이벤트를 (풀뿌리학생자치회 주관) 진행했다. 여름방학 기간에 있었던 수능 D-100 이벤트는 11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부착된 떡과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비타민 음료를 선물했다. 또한, 9월 25일에는 수능 D-50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12학년은 한 교실에 모여 샘물중고등학교 전교생과 교직원이 촬영한 '수능 오십일 전 최고의 선택, 십일기를 향한 우리의 응원' 23행시 릴레이 응원 영상과, 형제자매들의 응원 영상, 그리고 11학년 후배들의 응원 영상을 시청하였다. 이후 모두가 함께 12학년을 축복하며, 풀뿌리는 12학년 담당 선생님들께서 써주신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와 함께 전달된 후배들의 응원으로 11기는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



▲ 풀뿌리 수능 D-50 이벤트

2024년 수능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도 이어질 11기의 긴 마라톤에 페이스메이커가 항상 함께하길 바라며, 또 그들의 옆에서 길을 만드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며, 11기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마라톤을 완주해 낼 수 있기를 샘보가 진심으로 응원한다.

기다현 기자, 김시은 기자, 소은 기자



What's on your Desk?

연준샘

Q1, 책상 컨셉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이름표와 별칭의 모니터가 된 데스크와 7장 10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연준샘 자리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노안이 왔기 때문에 큰 모니터 화면이 필요해서 큰 모니터를 중앙에,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할 일이 많아서 듀얼 모니터로 쓰기 위해서 노트북을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2, 책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 한 가지를 소개해 주세요.

가장 소중한 물건은 의자,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이 의자는 제 무거운 무게도 다 버텨주고 정말 편안하고 안락해요. 그래서 장시간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은, 심지어 여름에는 덥지도 않은 매쉬 소재에 아주 좋은 의자입니다.

Q3, 책상에서 가장 오래 쓰신 물건 소개해 주세요.

가장 오래 쓴 거는 교과서고요, 그다음에 되게 특이한 고어사전이 있습니다. 중세국어 고어사전, 무려 대학생 때부터 썼기 때문에 2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생들 중세국어 수업할 때 가끔 사용하는데요, 여전히 도움을 많이 받는 책입니다.

Q4, 반대로 샘플 선생님 중에서 나만 있을 것 같다 하는 물건 소개해 주세요.

이건 정말 저만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잔량 체크기,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해 주는 기계인데요, 무선 마크를 쓸 때 전전지가 얼마 안 남아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미리 테스트 해서 무선 마크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

Q5, 책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물건 소개해 주세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기타가 있습니다. 사실 집에는 기타가 3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행용, 하나는 메인 기타, 그리고 또 하나는 세컨 기타인데 이 세컨 기타는 학교에 늘 있고요, 세컨 기타는 사실 CD 음반 편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당첨해서 받은 겁니다. 그게 벌써 받은 지 한 20년 정도 된 기타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좋은 기타를 사옴으로써 주셨고 그래서 이 기타를 받았을 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대여됐었고 선교지나 아플리치 때도 되게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상처도 많고 한 번 깨져서 수리도 했는데 여전히 20년 정도 됐는데도 소리를 잘 내주고 있어요.

Q6, 내 책상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샘플 선생님들 책상 중에 몇 안 되는 '기' 모양의 책상이고요, 그래서 일단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모니터도 큰 걸 놓을 수 있지만 책도 좀 많이 놓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과 팀장 선생님들만 가질 수 있는 내선 전화기도 있습니다.

Q7,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나요?

추억이 담긴 물건은 역시 아내와의 인생 네 컷 사진이고요, 일부러 붙여놓고 아내 얼굴 자주자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Q8,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책상의 만족도 1~10까지 표현한다면?

1에서 10까지 표현한다면 5점 주고 싶어요, 5점을 주는 이유는 일단 책상 배치나 구조나 이런 만족도는 되게 높은데요, 이 책상이 학생들이 자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생활팀 교무실 가장 안쪽에 있고 또 담임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찾아올 일이 적고 만약에 찾아와도 주로 혼육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과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서 책상에 놓인 위치가 조금 많이 아쉬웁니다.



하곰샘

Q1, 먼저 전체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구선 이책상은 움직이는 책상이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선생님이 취미가 아파서 가끔 이렇게 서서 일을 해요. 일주일 동안 한 번 정도? 이렇게 일을 하면 허리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만나 쌤이 후원해 주신 모니터, 선생님 컴퓨터가 2대예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인데 여러분들 아이폰을 관리했던 컴퓨터고, 이런 선생님주 업무를 하는 컴퓨터고, 이런 한글 문서를 주로 다루는 컴퓨터라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가 있습니다.

Q2, 가장 소중한 물건은 뭐가요?

물건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굳이 찾자면, 선생님 업무와 수업 자료를 모두 맡고 있는 요 녀석(컴퓨터)이 소중하죠. 그리고 이 사진 소중합니다. 가족이기에 때문에.

Q3, 가장 최근에 사진 물건이 뭐가요?

그저께 산 데번 컵.

Q4, 가장 오래 쓴 물건이 뭐가요?

컴퓨터를 8~9년? 가장 오래 쓴 것 같아요.

Q5, 샘플 선생님이라면 꼭 있는 물건이 있나요?

샘플중고등학교 가치 지향 영랑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네. 아이폰도 다 있습니다.

Q6, 그렇다면 선생님만 있는 물건이 있나요?

나만 있는 거? 이 책상, 우리 학교에 한 대밖에 없습디다.

Q7, 가장 잘 쓰는 추천하실 만한 물건이 있을까요.

책상, 너무 좋은데요.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꼭 성공해서 학교 선생님들 책상을 다 이런 걸로 파다다닥 바꿔주면 감사할 것 같네요.

Q8, 여기서 가장 안 쓰는 물건은 뭐가요?

이 컴퓨터, 컵을 올려놓으면 물이 고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책상 컴퓨터를 샀는데 컵이 안 들어가요. 이 컴퓨터 안 들어가고 이 컵도 안 들어가서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기는 나의 공간, 근데 먼지가 쌓였네요. 여기도 선생님 책상이예요.

Q9, 혹시 자랑하고 싶은 물건 있나요.

부속품인데, 저희 간식 차고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간식 차고.

Q10,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나요?

이 노트북이요. 퇴계 슬픈 이야기인데, 이 노트북은 친한 형의 유품인데 선생님한테 물려주고 갔어요. 그 형수님이 처치 곤란해서 버릴 수가 없다고 잘 쓰라며 왔습니다. 선생님! 그때 노트북을 하나 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버리지 않고 잘 쓰고 있어요.

Q11, 그러면 혹시 선생님 책상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선생님 책상은 지금 봤더니 주황색이 좀 있네요. 이 콘센트도 주황색, 콘센트 아주 좋아요. 된다고 뽑을 수 있고 여기에 코드 꽂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데번 쓰레기를 좋아해요. 주황색 비타 500, 주황색 문제집, 주황색 좀 있죠.

Q12, 마지막으로 책상 만족도는 얼마큼 되시나요.

책상 만족도는 98%, 2% 아쉬운 점, 애(노트북 거치대) 각도가 딱 안맞아서 이게 아쉽지만, 나머지는 너무 좋죠. 이거 자석이에요.



하하샘

Q1, 책상에 콘센트가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상 위 콘센트는 보신 것처럼 콘센트보다는 사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진짜 제 책상이 너무 깨끗해지고 교무실에서 제일 깨끗한 책상이었어요. 진짜 밀거나 말거나 제가 항상 이렇게 그런 거 막 거짓말로 좀 섞이는데 전 제일 깨끗한 책상이예요. 밀거나 말거나

Q2, 책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 한 가지를 소개해 주세요.

책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은 저희 아이가 저희 그린이예요. 6살 아이가 저를 그렸고, 그런데 이걸 왜 여기다 놔뒀냐 학교에 있으면 제가 우리 자녀 있다는 사실 깨닫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림을 계속 보며 "집에 가야 돼"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집에 가기 싫거든요.

Q3, 가장 최근에 사진 물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가장 최근에 선물 받은 물건을 자랑해도 될까요? 원래 학생에게 뭐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았어요. 반주 비타민 C예요. 최근 감기에 걸려 수액까지 맞을 정도로 아팠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나아졌고, 그런데 한 학생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선생님! 요즘 감기 좀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렸나 봐요.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 비타민을 선물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데" 싶었어요. 보통은 선물을 받으면 선생님들과 나눠 먹어야 하잖아요. 나눠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타민을 봤는데 이런 아무래도 저 혼자 먹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을 하나하나 까먹을 때마다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먹어요. 그래서 전은 제자들이 주는 사랑을 먹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에 제일 아껴요.

Q4, 샘플의 선생님이라면 꼭 있을 것 같다 하는 물건

샘플의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책상 위에 아이폰이 꼭 있으시던데요. 그래서 퇴근할 때도 아이폰도 들고 가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림 좀 부러워요.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으신 것 같다. 그리고 막 노트북도 들고 가시면 부러워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놓고 갈 때 있어요. 일 없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

Q5, 가장 자주 쓰는 물건, 추천해 주실 만한 물건 알려주세요.

자주 쓰는 물건은 특별히 포스트잇이요. 원래는 많이 붙여왔었는데 최근에 정리했구요. 제가 포스트잇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하고 공부 잘해야 하니까, 사이즈별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붙여서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것을 잘하자 약속하는데, 이제 12학년 올라가는 제자들!랑 복습하는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수업 시간에 나눠줘요. 저는 아이들한테 포스트잇을 문제집 뒤에 붙여놓고 쓰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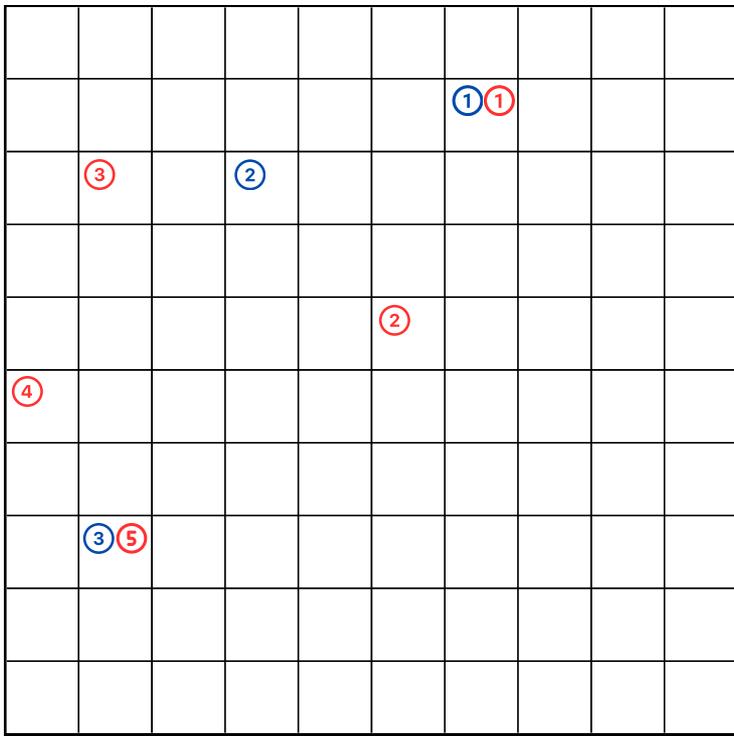
Q6, 마지막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나요?

네. 이게 제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예요. 친구가 직접 만들었는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편지가 있어요. 추억은 다 이런 것 같아요. 저 힘들 때마다 편지 받은 거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거든요. 남편이 써준 거, 아이들이 써준 거, 우리 반 친구들이 써준 거, 곡도순례 같은 조에서 써준 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 아이들이 써준 편지 같은 거 되게 많이 꺼내서 보요.



김시현 기자 손지민 기자 오윤우 기자

십자말 풀이



가로 열쇠

1. 매년 모든 학생이 80km를 걷는 행사
2. 10월 복상 본문
3. 우리 학교에 있는 교회 이름
4. 학기를 시작할 때 하는 행사
5. 샘물에서 열리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행사

세로 열쇠

1. 7학년이 갔던 체험학습 장소
2. 샘물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리그
3. 샘물의 모든 학생, 학부모님이 함께 즐기는 축제

다른 그림을 찾아라! (총 5개)



양혜빈, 김시현 기자
그림
학교까지
우리집에서



편집장: 이주원

편집부: 신예성 안예나 이루리 이수하 전예빛 정다해 김시현 박은빈 손지민 오윤우 기다현 김시은 반해빈 박소현 서승주 소은 양혜빈 이서원 배영현 기유진 이주원 홍아진

디자인: 기유진 이주원 홍아진

감수: 모듈샘

*제보 또는 취재요청을 받습니다 : s2007012@smca.or.kr

짱

글자를 모으면
선물이지?

